

바닷속을 시각화로 푸는 낚시 채널 · 출조 자료집

한치, 언제 어디로 가야 잡힐까?

10년 조항과 논문으로 답합니다. 추측·소문은 싹 뺐습니다.

이 자료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

10년치

조항 기록
2015-2025

15건+

국제 논문 ·
학술 보고서

NIFS

국립수산
과학원

2.8만+

현장 질문 · 글
검색 교차

2015년부터 2025년까지, 10년치 조항을 한 줄에 담았습니다. 한 해 반짝이 아니라 **패턴**으로 봤어요.



다른 한치 자료와 다른 점

시중 자료는 대부분 경험·소문입니다. 이 자료는 **10년치(2015-2025) 조항과 국제 학술자료, 국립수산과학원을 교차검** 증했고, 확인 안 된 말은 "**카더라**"라고 솔직히 표시했습니다.

담긴 내용 · 18쪽

· 한치의 정체 · 비슷한 5종 구분 · 몰랐던 비밀	과학
01 지역별 시즌 캘린더 · 6권역 상세 · 워킹 한치	10년 조항
· 10년 데이터가 말하는 것	데이터
02 수온 · 바다가 바뀐다(기후)	논문
03 빛·축광 · 집어등의 과학 · 명당의 조건	논문
04 장비·채비·매듭 · 입질과 챔질 · 랜딩·손질	실전
05 속설 진짜와 카더라 · 먹는 한치 · 체크리스트	실전

정체

한치는 정확히 어떤 종일까? — 답은 5종 구분하기

'한치'는 표준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. 다들 헛갈리는 다섯을 **지느러미·뼈·제철**로 단번에 갈라드려요.

반전 — 한치는 '오징어'가 아니라 '꿀뚜기과'입니다

구분 기준이 황당하게도 **눈꺼풀(안막)**이에요. 눈에 막이 있으면 꿀뚜기(한치), 없으면 오징어(살오징어). 그래서 제주 한치 (**창꿀뚜기**)와 동해 한치(**화살꿀뚜기**)는 이름만 같지 **서로 다른 종·다른 철**입니다. **검증**

이름	생김새 — 알아보는 법	속 뼈	제철	한 줄
창꿀뚜기 제주한치 · 겐사키	가늘고 길쭉, 지느러미는 몸통 뒤쪽 · 붉은끼 · 통통	없음	여름~가을	우리가 여름밤에 잡는 그 한치 (난류성)
화살꿀뚜기 동해한치 · 아리리카	더 희고 투명 , 끝이 화살촉처럼 뾰족 · 날씬	없음	겨울~봄	이름만 한치, 다른 종·다른 철 (한류성)
무늬오징어 흰꿀뚜기	몸통 두툼, 지느러미가 몸통을 빙 둘러쌌	없음	봄~여름	한치의 친척 · 에깅 대표어종
갑오징어 참갑오징어	넓적 · 짧은 다리	있음(단단한 갑)	봄·가을	속에 뼈 있는 게 결정적 차이
살오징어 일반 오징어	몸통 끝 마름모(삼각) 지느러미 · 적갈색 점	없음	겨울	흔히 '오징어'라 부르는 그것(한류성)

헛갈리지 마세요 · 아리리카(화살꿀뚜기) ≠ 살오징어입니다 — 둘 다 '화살' 소리를 들어도 과(科)가 달라요(꿀뚜기과 vs 살오징어과). · 학명은 자료마다 표기가 흔들려, 이 자료는 **한글 표준명**을 기준으로 씁니다.

비밀

한치, 이건 아마 몰랐을 겁니다

출처 있는 것만 모았습니다. **한치 연구** = 한치를 꼭 집어 밝힌 것, **오징어 공통** = 오징어·두족류 전체에서 밝혀진 것으로 정직하게 갈랐어요.

비밀	내용	출처
① 머릿속 나이트 통계석	한치 머릿속 돌(통계석)에 하루에 한 줄씩 성장선이 새겨집니다. 세어보면 며칠을 살았는지, 정확히 며칠에 태어났는지 까지 역산돼요. 한치 연구	Wang 2008 Li 2024
② 딱 1년살이	한치는 약 9개월 살아요. 산란기에 여러 번 나눠 알을 낳은 뒤 생을 마칩니다 — "한 번 낳고 끝"이란 말은 오해예요. 한치 연구	Guo 2023 Wang 2008
③ 빛의 '결'을 보는 눈	색맹이지만 편광(빛의 결) 을 봅니다. 덕분에 물속 투명한 새우·플랑크톤을 더 멀리서 알아채 사냥해요. 오징어 공통	Shashar 1998 (Nature)
④ 0.02초 손맛	8개 팔 + 긴 촉완(먹이팔) 2개가 0.02초 만에 튀어나와 먹이를 낚아챱니다(초속 2m↑). 에기를 무는 그 순간이 이겁니다. 오징어 공통	Kier 1997 (J.Exp.Biol.)
⑤ 심장 3개 · 파란 피	심장이 셋(몸 1 + 아가미 2). 피는 철(붉은색) 대신 구리(헤모시아닌) 로 산소를 날라 파랗습니다 . 오징어 공통	두족류 생리
⑥ 이름의 비밀	'한치'는 별명이에요 — 다리가 '한 치'(약 3cm)밖에 안 돼서 붙었습니다. 한치 연구	NIFS·연합뉴스

덤 — 오징어가 신경과학을 열었습니다. 우리가 신경이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알게 된 건 **오징어의 굵은 신경(거대축삭)** 덕분이예요(Hodgkin·Huxley, 1952 → 1963년 노벨상). 바닷속 이 작은 생물이 교과서를 바꿨습니다.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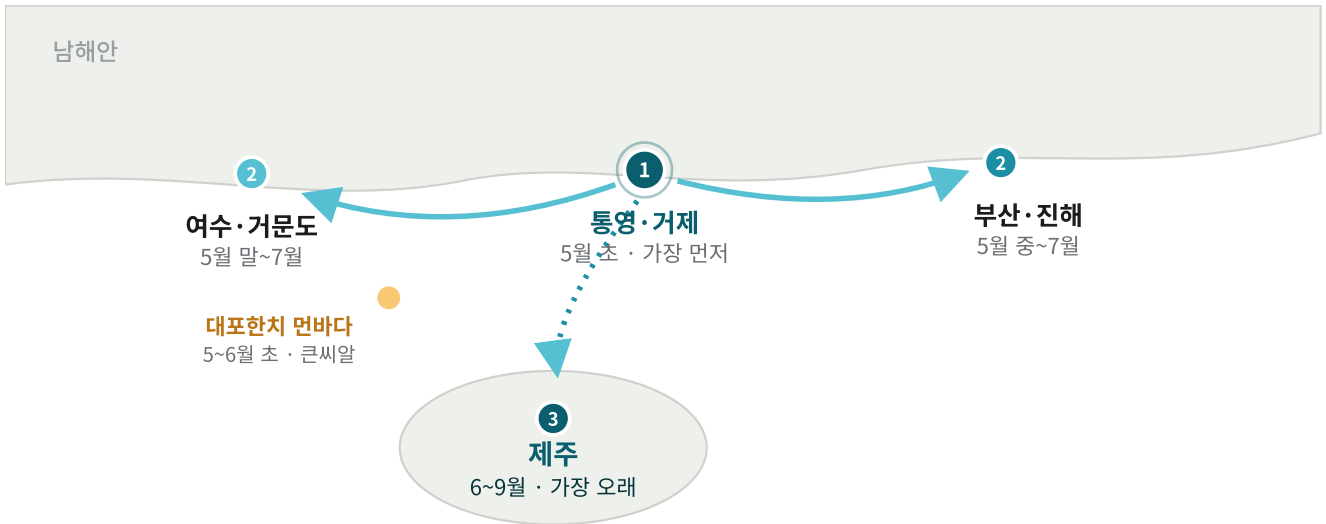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시즌 캘린더

통영·거제권이 5월 초로 가장 먼저 열리고, 여수·부산이 뒤따르며, 제주가 8~9월까지 가장 오래 갑니다. 해마다 수온·태풍 따라 들쭉날쭉하니 범위로 보세요.

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
통영·거제 선상	-	초 시작	본격	피크	중순	갈치
부산·진해 선상	-	중 탐사	본격	피크	중순	갈치
여수 먼바다 선상	-	말 왕한치	본격	본격	↓	갈치
제주 선상	-	첫출조	본격	피크	피크	막판
제주 방파제·도보	-	시작	본격	본격	본격	막판
대포한치 아리이카·먼바다	-	큰씨알	감소	-	-	-

■ 피크
 ■ 본격
 ■ 시작·탐사
 ■ 초입·막판
 ■ 대포한치(아리이카·시즌초 큰 씨알)

시즌이 퍼지는 방향 · 모식도(실제 지형 아님)



① 통영·거제 먼저(5월 초) ② 여수·부산 뒤따라 ③ 제주 가장 오래(~9월) ● 대포한치 먼바다(시즌초)

01 · 상세

지역별 정보, 출조 전에 한눈에 보기

권역마다 본시즌 · 주 포인트 · 씨알 · 채비가 다릅니다. 갈 곳을 정했으면 이 줄만 보고 짐을 싸세요.

권역	본시즌	주 포인트	씨알 · 특징	한 줄 팁
통영 · 거제 선상	5월 초~7월	통영 먼바다 선상	마릿수 · 씨알 균형	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려요. 5월 초 탐사부터 큰 씨알이 붙습니다.
부산 · 진해 선상	5월 중~7월	야간 선상	초반엔 오징어 섞임	왕한치는 6~7월. 7월 갈치 금어기 끝나는 8월에 다시 반등합니다.
여수 먼바다 선상	5월 말~7월	거문도 · 초도	"왕한치"(대형 씨알)	시즌 초엔 깊은 바닥층부터 — 초저녁이 골든타임.
제주 선상	6~9월	성산 · 우도 톱런	마릿수형 — 작은~중간 씨알 위주	가장 늦게까지 이어집니다. 마릿수로 승부하는 곳.
제주 방파제 · 도보	5~8월	동부두 · 종달 · 삼양	워킹 에깅 — 입문 최적	배 없이 걸어서. 가족 · 초보 첫 한치 도전지로 무난.
대포한치 야리이카	5~6월 초	남해 · 제주 먼바다 선상	큰 씨알, 마릿수는 적음	시즌 초에 잠깐. 본격 시즌(켄사키) 들면 비중 ↓. "대포 20마리가 콧물 100마리보다 낫다"는 귀한 씨알.

씨알 용어(작은 → 큰):

콧물사이즈(잔챙이)	중치급	대포 · 왕한치
------------	-----	----------

- 초봄 찬물엔 아직 한치가 안 붙어요 — 물이 데워져야 붙기 시작합니다(→ 데이터 · 수온).
- 한여름 표층이 너무 뜨거우면 더 깊은 데로 내려가 버립니다(→ 수온 참고).
- 금어기는 따로 없지만, 콧물사이즈(잔챙이)는 낚주세요 — 금방 큼니다.

01 · 워킹

배가 없어도 한치는 잡힙니다 — 워킹 한치

방파제·갯바위에서 **걸어서** 하는 워킹 한치 — 장비도 방법도 선상과 다릅니다.

선상 (배 타고)

장비 · 한치 전용대 + 수심측정 베이트릴

채비 · 오모리그 · 다단 + 이카메탈 15~40호

공략 · 깊은 수심층을 수직으로

워킹 (걸어서)

장비 · 에깅대(ML) + 스피닝 2500~3000

채비 · 가벼운 예기 / 전자 구멍찌 + 슷테

공략 · 불빛 경계의 표층~중층을 캐스팅

① 에깅 (던져서 잡기)

에깅대에 **합사 0.6~0.8호 + 카본 리더 + 축광 예기**. 던지고 가라앉히며(폴링) 툭툭 샤크리로 유혹합니다. 활성도 좋을 땐 **발앞 2~5m**에서도 입질이 와요 — 멀리 안 던져도 됩니다.

② 찌낚시 (제주 방파제 전통)

주로 **제주**에서 하는 방식이에요. 야간 **전자 구멍찌 + 한치 삼봉(에기에 생미끼)**을 점멸 집어등 불빛에 흘립니다. 입질이 찌로 보여 편하지만, **전국적으론 에깅이 더 보편적**입니다.

어디서 — 워킹 한치 지역별

권역	워킹 한치	대표 포인트
제주 ★	방파제 천지 · 도보 본진	동부두 · 종달 · 신산리 · 하도 · 행원
동해	여름~초가을 · 포인트는 제한적	영덕 · 포항 · 울진 방파제 · 갯바위
남해 본토	한치는 선상 위주 · 도보는 드물	도보 에깅은 주로 무늬오징어

- **가로등 · 집어등 불빛의 경계가 자리** — 한치가 빛 가장자리에서 먹이를 노립니다(→ 명당 · 집어등의 과학).
- 예기는 **축광 충전 후** 던지기. 야간 안전(구멍조끼 · 미끄럼 주의)도 꼭 챙기세요.

데이터

10년 조황을 뜯어보니 — 데이터가 말하는 것

2015~2025 조황 보고(국제신문 [조황]·낚시춘추·선사 조행기)를 모아 패턴을 추렸습니다. 통계가 아니라 보고 기반 경향이라, 항목마다 신뢰도를 함께 적었어요.

한치는 '5월'이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— '수온'을 보고 들어옵니다

첫 출조 조행기들이 적어둔 실측 수온이 말해줍니다. 제주 첫 수(5/18) 표층 16.7°C → 17.8°C로 오르자 첫 마리, 통영 첫 출조 17.5°C. 즉 표층이 17~18°C에 닿는 시점이 개막 신호예요. 한여름엔 24~28°C가 피크고요(→ 수온). 달력 말고 수 온계를 보세요. 신뢰도 중상

10년 보고에서 반복된 패턴	근거	신뢰도
① 통영·거제가 먼저 터진다. 부산·진해는 한 박자 늦고, 7월 갈치 금어기가 끝나는 8월에 한치가 다시 반등한다.	국제신문 [조황] 다년	중
② 시즌 초반은 마릿수보다 씨알. 적게 잡혀도 '대포한치'(굵은 씨알)가 먼저 올라온다.	2024 통영 흥도·제주 보고	중상
③ 한 번 터지면 3~5일은 쉰다. 매일 잘 되는 게 아니다 — 들쭉날쭉이 정상이다.	제주·통영 조행기	중
④ 장마·폭염이 '시즌 끝' 신호. 잔 씨알로 바뀌고 갈치·살오징어로 어종이 넘어간다.	국제신문 2023 외	중
⑤ "요즘 개막이 빨라진다"? 단정 못 한다. 유난히 빠른 해(2021 5월 초·2026 4/29)도, 늦은 해(2020·2025 6월)도 섞여 있다.	연도별 첫출조 기록	약

솔직 고지 · 위는 통계가 아니라 일화적 조황 보고의 집적입니다(선사·날씨·포인트 변수 큼). 2015~2017 일부 지역 개막 일은 기록을 못 찾았고, '온난화가 개막을 앞당긴다'는 연결은 아직 가설이라 ⑤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.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적는 게 이 자료의 원칙입니다.

02

수온 가이드

여름 한치(창꿀뚜기)는 난류성 —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. 핵심은 **입성 → 피크 → 회피**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.



"수온 높으면 낱"? 한치는 정반대예요

그 말은 겨울 오징어(살오징어, 한류성) 얘기입니다. 한치는 난류성이라 **따뜻해야 붙어요. 17~18°C에 연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**(→ 데이터), 한여름 24~28°C에 한창이고, 너무 뜨거워지면(28°C 위) 표층에서 빠져 더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— 논문 상한과 현장 선장 얘기가 일치합니다.

왜 여름에 우리 연안으로 들어오나

한치는 동중국해에서 알을 낳고, 쿠로시오·대마난류를 타고 올라옵니다. 봄(4월)·여름(8월) 부화군이 나뉘고(부화수온 18~24°C), 따뜻한 물길이 연안까지 넓어지면 남해·제주 가까이 들어오죠. 그래서 그해 물길(수온)이 어디에 어장이 서는지를 좌우합니다.

참고: 우리 바다는 57년간(1968~2024) 표층수온 **+1.58°C**(남해 +1.27°C, 동해 +2.04°C) 상승 — 전 지구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. 난류성 어종이 한류성 자리를 채우는 흐름이고요(→ 바다가 바뀐다 · 국립수산과학원 2025).

02 · 기후

바다가 바뀌고 있다 — 한치에게 유리한 쪽으로

왜 한치 자료가 지금 더 중요해졌나. 우리 바다 어종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중이거든요.

겨울 '오징어'(살오징어)가 무너졌습니다

전국 살오징어 생산량 2004년 21.3만t → 2024년 1.35만t — 16분의 1로 줄어 역대 최저. 동해안만 보면 2020년 8,652t → 2024년 852t(90%+ 급감)이에요. 우리가 "오징어가 사라진다"고 느끼는 게 통계로 사실입니다. **KOSIS**

↓ 줄어드는 한류성

살오징어 · 16분의 1로 붕괴

명태 · 2019년부터 어획 전면 금지

도루묵 · 임연수어 등 장기 감소

↑ 늘어나는 난류성

방어 · 전갱이 · 삼치 · 40년간 꾸준히 증가

한치(창꼴뚜기) · 난류성 — 서식지 북상 (방향성, 단독 수치는 잠정)

원인은 결국 수온 — 산란장이 너무 뜨거워졌다

우리 바다는 57년간 표층수온 +1.58°C(동해 +2.04°C) 올랐어요. 살오징어 산란장(동중국해 북부~동해 남부)의 가을 적정 수온은 15~23°C인데, 2023년 10월 동해 수온이 25°C를 넘겨 알·유생이 못 살게 됐습니다. 반대로 난류성 한치에겐 살 곳이 북쪽으로 넓어지는 거고요.

방향(난류종 ↑ · 한류종 ↓)과 큰 수치(살오징어 붕괴 · 표층 +1.58°C)는 통계·논문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. 다만 '한치 어획이 몇 % 늘었다'는 단독 수치는 아직 잠정이라 방향성으로만 적었습니다.

03

빛 · 밝기 · 축광 원리

집어등과 예기, 무엇이 한치를 부르나 — 색보다 **밝기**와 **실루엣**입니다.

① 집어등이 모은다 (확실한 사실)

전 세계 오징어 잡이의 기본이 집어등이에요. 다만 **정확히 왜 모이는지(색·밝기·먹이)**는 종·연구마다 달라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(→ '집어등의 과학'에서 더 깊이).

② 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

집어등은 **백색(주광색) 주력**에 녹색도 씁니다. 한 실험에선 단일 녹색광이 복합광보다 더 잡힌 사례도 있고요(외양성 보라화살오징어). 현장에서도 **어떤 날은 노랑 예기, 어떤 날은 백색이 먹히는 식**으로 그날그날 달라요. 즉 **"무조건 이 색"은 없습니다** — 그래서 색보다 ③이 중요합니다.

③ 왜 색보다 밝기·실루엣인가 (핵심)

두족류는 **색맹**입니다(시각색소 1종). 색이 아니라 **명암 대비와 경계(실루엣)를 가장 잘 봐요** — 빛의 결(편광)까지 보거든요. 그래서 예기는 색깔 고민보다 **밝기 대비 · 실루엣 · 축광(빛 머금음)**이 핵심입니다.



④ 축광 쓰는 법 (실전)

축광은 **빛을 잠깐 머금었다가 어두운 물속에서 은은히 내뿜는 것**입니다(녹색 잔광이 가장 오래 가요). 색맹인 한치에겐 이 은은한 빛이 곧 ③의 **밝기 대비**가 됩니다. · **던지기 전** 집어등·축광 라이트에 **몇 초 비춰 충전 · 몇 번 던지면 약해지니** 뜸하면 재충전 · 너무 쾅하게보다 **은은하게**.

03 · 과학

집어등의 과학 — 빛이 아니라 '먹이'를 부른다

현장꾼도 헛갈리는 부분이에요. 집어등은 단순히 '밝아서'가 아니라, 먹이를 모으고 '그늘'을 만들어 한치를 부릅니다.

한치는 빛 '한복판'이 아니라 빛-그늘 '경계'를 노립니다

오징어 조업 연구를 보면, 배 불빛이 만드는 '그늘 구역'에 오징어가 모입니다 — 밝은 한복판이 아니에요(살오징어 기준 관찰). 한치도 색맹이라 밝기 '대비'를 가장 잘 보니,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가 눈에 잘 띄어요. 그래서 집어등 바로 밑보다 그 가장자리(그늘 쪽)를 노리는 게 현장 정설입니다. [살오징어 연구 · 현장](#)

먹이사슬 — 빛이 부르는 건 한치가 아니라 '먹이'입니다



그래서 집어등은 "빛으로 한치를 홀린다"기보다 빛 → 먹이 → 한치의 밥상을 차리는 것. 오징어는 집어등 아래 특정 광량 '층'에 모인다는 조업 실측도 있어요(살오징어 기준 · 종 · 해역 따라 수심은 달라요).

한치 눈의 과학 — 빨강은 거의 못 본다

한치 눈의 시각 민감 피크는 약 490nm(청록). 청·녹·백색엔 눈이 강하게 반응하지만 빨강(red)은 거의 못 봅니다. 집어등 밑에선 눈이 실제로 빛에 적응(망막 색소 이동)하고요.

03 · 명당

한치 명당, 어디에 잘 붙을까?

특정 자리(지명)는 해마다 바뀝니다. 변하지 않는 건 '조건'이에요 — 이 다섯이 겹칠수록 명당입니다.

조건	왜 한치가 붙나
① 불빛 집어등 · 가로등	집어등이 켜지면 한치가 모입니다 — 가장 강력한 조건.
② 빛-어둠 경계 ★ 핵심	한치는 빛 한복판이 아니라 경계(그림자 라인) 에 숨었다 튀어나옵니다(→ 집어등의 과학).
③ 조류 흐름	조류가 모이거나 비껴가는 곳에 먹이와 한치가 붙습니다.
④ 지형 경계 여밭 · 암초 · 수중턱	모래-여밭, 수중턱 같은 구조 경계는 들 · 날물 내내 살아있습니다.
⑤ 수심층 선상	한치가 머무는 층을 찾아 채비를 안착 — 잡힌 층 공유가 마릿수를 좌우.

명당의 진짜 핵심 — 불빛 '한복판'이 아닙니다

한치는 빛이 가장 밝은 한복판보다 **빛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**에 매복합니다. 색맹이라 밝기 대비를 가장 잘 보기 때문이에요 (앞 '빛' · '집어등의 과학' 참고). 그래서 집어등 **바로 밑보다 그 가장자리**를 노리는 게 한 수 위입니다.

04 · 장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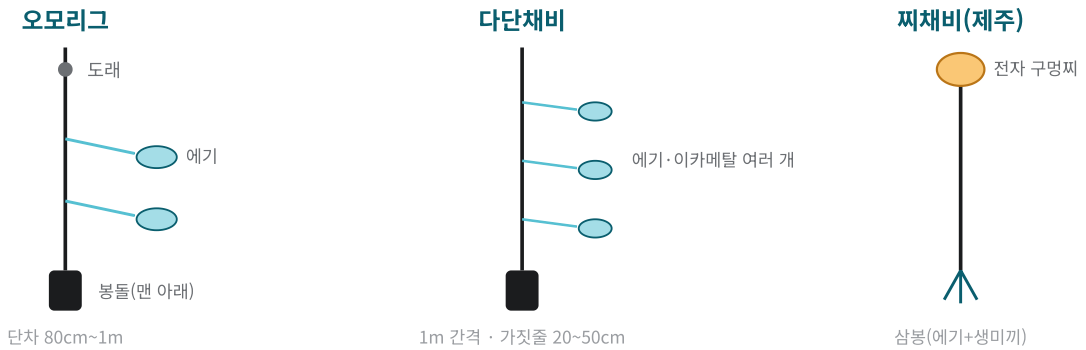
장비 · 채비 · 매듭 — 한 장 정리

초보가 제일 많이 묻는 게 **릴 종류와 매듭**이에요. 그것부터 답하고 채비 구조로 갑니다.

① **릴 — 어디서 하나냐로 정해요**

릴	언제	한 줄
스피닝 2500~3000	워킹 · 캐스팅 예킹	입문자는 이거. 방파제·갯바위에서 던지는 데 무난.
베이트(수심측정)	선상 수직 낚시	몇 m에 떨어졌는지 보여줘 잡힌 층 찾기 에 유리.
전동	깊은 선상 · 장시간	편하지만 필수는 아님. 깊은 먼바다·체력 부담 클 때.

② **채비 — 줄 세우면 이렇게 (모식도)**



③ **매듭 — 딱 두 군데만 묶으면 됩니다**

- **원줄(합사) ↔ 리더** — 가늘고 강한 **FG노트**가 표준입니다. 처음이라 어렵다면 더 쉬운 **직결 매듭**(트리플 에이트 등)이나, 묶을 필요 없는 **전용 도래**로 대체해도 됩니다.
 - **채비 ↔ 원줄** — **도래(스위벨)**로 연결해 줄이 꼬이는 걸 막습니다.
- 합사 **0.6~1.0호**에 카본 리더 **2.5~5호(80cm~1.3m)**면 무난합니다. 매듭이 손에 잘 안 익으면, **출조 전 낚시점에서 미리 묶어 달라고**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
04 · 입질

입질,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— 신호 읽고 챔질하기

한치 입질은 **확 때리지 않습니다**. 초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 "끈적·묵직"한 신호예요.

① 이런 신호가 오면 "올라탔다"

신호	느낌 — 현장 표현
묵직·끈적 가장 흔함	물속에 젖은 비닐봉지·미역 걸린 듯 무게가 슬쩍 붙는다. 살아있는 묵직함.
폴링 중 줄 풀림 ★ 폴링바이트	에기 내리는 도중 라인이 갑자기 홀렁 풀려나가거나 멈춘다 — 입질의 절반이 여기서.
초릿대 변화	소리 끝이 미세하게 달라지거나 쭈욱 끌려간다 . 툭 치는 강한 입질은 드뭅니다.
갑자기 가벼워짐	무게가 사라진 듯 가벼워진다 — 에기를 들고 위로 떠오른 신호.

★ 화려한 액션보다 '멈춤(스테이)'에서 봅니다

현장 고수들의 공통 얘기 — **샤크리(액션)를 잘해서 잡는 게 아니라, 액션 뒤 '멈춤·폴링'에서 문다는 거예요**. 한치는 먹이를 확 덮치지 않고 긴 촉완으로 끌어안듯 잡거든요. 그래서 **들어올린 뒤 천천히 떨어뜨리고(폴링), 그 멈춤 구간을 주시하는 게 핵심입니다**. 샤크리는 한치를 부르는 신호일 뿐, 입질은 '정지'에서 와요.

② 챔질 — 채비 따라 다릅니다

에깅 · 팁런 · 오모리그

올라탄 느낌이 들면 **주저 말고 한 번 채서** 바늘을 박는다.

오모리그는 **챔질 타이밍이 짧고 빠르다**.

찌낚시 · 삼봉

한치는 **살이 연해** 갈고리바늘이 쉽게 걸린다 — **강한 챔질 불필요**.

세게 채면 오히려 **살이 찢겨** 떨어진다.

채비는 갈려도 **공통 원칙은 하나** — **줄 텐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, 급하게 들어올리지 마세요**. 한치는 무게로 떨어지고 수면에선 먹물을 씹니다(→ 랜딩·손질).

04 · 마무리

한치를 걸었다면 — 올리기 · 손질 · 안전까지

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떨구거나, 먹물 뒤집어쓰거나, 해파리에 쓰이는 게 한치 낚시입니다. 이것만 알면 깔끔해요.

올리기 (랜딩)

큰 씨알은 뜰채 — 살이 연해 들어올리다 바늘구멍 찢겨 떨군다.

수면에서 먹물 분사 — 얼굴 조심, 옆으로 빼며 올린다.

텐션 일정 · 너울 고점엔 잠깐 멈췄다 감기.

손질

머리·몸통 분리 — 살짝 비틀어 먹물주머니 안 터지게.

투명한 연골·내장·먹물주머니 제거 → 껍질 벗기기.

먹물 묻으면 밀가루로 문질러 닦아낸다.

★ 6월 한치철 = 해파리철 — 안전이 먼저

한치 시즌(초여름)은 해파리도 많아요. 장갑 필수. 쓰이면 바닷물(또는 식초)로 씻고, 맨물·소변은 쓰지 마세요 — 남은 침 세포가 더 터져 악화됩니다. 박힌 촉수는 비비지 말고 카드 등으로 긁어 떼낸 뒤, 통증·호흡곤란이 심하면 병원으로.

보관 · 손질 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냉동하세요(물기가 남으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). 냉동 회·물회·숙회 다 좋습니다.

※ 한치 보관법은 낚시인마다 의견이 갈려 '정답'은 없고, 물기 제거만 공통입니다.

05

한치 속설, 진짜와 카더라

낚시터에 도는 말, 근거 있는 건 근거와 함께 · 카더라는 카더라라고 갈라냈습니다.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적습니다.

진짜 — 근거 있는 말

한치는 따뜻한 물 — 24~28°C에 붙는다 논문

집어등이 한치를 모은다 조업·연구

색맹 → 밝기·실루엣으로 본다 Nature-Curr.Biol.

떨어질 때(폴링)에 입질이 몰린다 현장 일치

통영·거제 먼저 → 제주가 가장 늦게 10년 조항

카더라 — 근거 없는 말

"동풍 불면 낱" 출처 없음

"만조에 가야 잘 된다" 말이 엇갈림

"비 온 뒤가 좋다" 경험담 수준

"사리(대조)에 잘 된다" 한치 전용 근거 없음

"에기는 OO색이 최고" 연구끼리 모순

참고는 하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— 그날 수온하고 불빛(집어등)이 훨씬 큼니다.

붕피싱이 자료를 만드는 원칙

맞는 건 근거와 함께, 모르는 건 "모른다"고. 그래야 엉뚱한 데서 헛걸음 안 합니다.

05 · 미식

잡은 한치, 어떻게 먹을까? — 영양과 요리

한치는 두족류 중에서도 **살이 부드럽고 단맛이 좋아 회·물회로 으뜸**으로 칩니다.

한치 100g 영양 (대략)

81kcal

저열량

14.9g

단백질
(고단백)

1.8g

지질
(저지방)

"오징어=콜레스테롤 폭탄"? 오해입니다

연체류에 콜레스테롤이 있긴 해요. 하지만 한치엔 **타우린**이 풍부해 담즙산 형성을 도와 **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** 보고됩니다. 건강한 사람이라면 **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**는 게 일 반적인 견해예요. (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니 참고만.)

이렇게 먹어요

회·물회 — 부드럽고 단맛, 한치의 정수

숙회(데침) — 살짝 데치면 탱글탱글

건조(마른 한치) — 굵지 않아도 부드러운 안주

신선도 팁

잡은 즉시 **아이스박스**로 — 두족류는 빨리 무름

손질 후 **물기 제거** 뒤 냉동(→ 마무리)

몸이 **맑고 탱탱**하면 싱싱한 것

05 · 체크

첫 출조 준비물 체크리스트

호수·수량은 그날 선사가 알려주는 수심·포인트 기준으로 가감하세요. 절대값이 아닙니다.

장비

- 로드 — 끝이 낭창한 솔리드팁 + 허리힘 있는 한치 전용대 (없으면 타이라바대)
- 릴 — 수심측정 베이트릴 또는 스피닝 3000번

줄·채비

- 원줄 합사 **0.6~1.0호** (표준 0.8호)
- 쇼크리더 카본 **2.5~5호** · 80cm~1.3m + 원줄-리더 매듭(FG/직결)
- 봉돌(이카메탈) **15~40호** — 호수는 그날 선사가 불러주는 수심에 맞춰 여러 개
- 채비 2~3단(다단) 또는 **오모리그** (현장에선 오모리그가 유리하다는 분이 많습니다)

에기·소품·안전

- 에기 여유분 — 자주 떨구니 넉넉히 · 축광 시켜서 던지기 · 색은 노랑/백 섞어서
- 축광용 라이트 · 아이스박스 · 집게(가프) · 뜰채 · **장갑(해파리)** · 구명조끼

출조 직전, 이 두 가지만 챙기면 절반은 갑니다

- ① **봉돌 호수를 그날 수심에 맞춰라.** 호수가 안 맞으면 채비가 똑바로 안 내려가고 사선으로 끌려가, 한치의 예민한 입질을 아예 못 봅니다. 출조 전날 선사에 전화해 수심·추천 호수를 물어보세요.
- ② **잡힌 수심층을 같이 탄 사람과 공유하라.** 한치는 층을 타고 모입니다 — "몇 미터에서 왔다"를 나누면 배 전체 마릿수가 올라갑니다(모든 출처·현장이 일치하는 거의 유일한 실전 팁).